

한국출판인회의 제5대 회장에 들녘 이정원 사장 취임

# 건전하고 풍족한 출판환경을 위해 뛰겠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



지난 2월 22일, 한국출판인회의 제5대 회장으로 도서출판 들녘의 이정원 사장이 선임되었다. 각 출판사 대표들의 추대 형식으로 임기 2년의 회장에 취임한 이정원 회장은 특유의 굵은 목소리로 “건전한 출판환경과 풍족한 출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던졌다.

취임 후 기자와 만난 이정원 회장은 “출판인의 행복은 결국 저자와 만나고, 창의적인 기획을 만들어내고, 책을 편집하고 디자인하며,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이를 위해 동료 출판인들과 함께 건전한 출판환경과 풍족한 출판환경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말한 ‘건전한 출판환경’이란 도서정가제와 난마처럼 얽힌 유통, 사재기 등 출판계가 안고 있는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할인과 경품, 사재기 등으로 얼룩진 유통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출판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출판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풍족한 출판환경’은 sbi를 통해 많은 출판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진 출판인들이 재교육되고, 아울러 한국출판인회의의 존립목적과도 같은 독서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출판계와 독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인들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원 회장은 근시안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한국출판인회의뿐 아니라 출판계를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하나가 가칭 ‘미래출판연구소’의 설립이다. 현재의 출판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연구해 해마다 ‘백서’를 발간하는 등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출판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은행 설립 문제도 공론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정원 회장이 출범 9년째를 맞는 한국출판인회의와 함께 급변하는 출판환경을 어떻게 향해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이정원**

취재 정동석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